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6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3.

복지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. 3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외 4명
- 발의일자: 2022. 3. 4.(금)
- 회부일자: 2022. 3. 4.(금)
- 검토기간: 2022. 3. 7.(월) ~ 3. 11.(금)

2. 제정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, 숭고한 뜻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역사문화인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~안 제8조)
- 라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낳은 역사문화인물의 선양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, 역사·문화적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중앙정부는 정체성 확립과 역사·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1990년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인 재발견 운동의 하나로 이달

의 문화인물을 선정해 각종 선양사업을 펼쳐 선현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펼쳐왔음.

- 특히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의 역사·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2005년 대구문화인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문화인물을 선정하고, 현창사업위원회를 구성해 현창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
-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대구를 대표하는 근현대 문화예술인 12인을 선정하고, 매월 ‘이달의 문화인물’을 지정해 책자 및 홍보를 제작·배포하는 등 시민캠페인을 실시하였음. 또한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역사문화인물 선양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-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한 달서구는 1998년 진천동 입석 국가문화재 지정 및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통해 대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, 임진왜란 때 활약한 화원 우배선 장군과 월계 우승기 독립지사, 향산 윤상태 독립지사 등 많은 역사문화인물을 배출한 지역으로
- 문화·예술·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선양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산을 확보하고, 달서구민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달서구 역사문화인물은 주민의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출생, 업적 및 행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와 지역주민의 일반적 평가에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, 업적에 대한 심의 과정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달서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역사문화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□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」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, 그 정신을 계승·발전하고자 하는 것이고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이에 반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더불어 중요해지고 있는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지역사랑 고취를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발굴하여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함으로써 달서구의 위상을 높이고, 지역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목적이 서로 다르고
-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달서구민이 인정하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정하도록 한 제정의도에 비추어 출생 혹은 활동영역 등 최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됨.
- 더불어 달서구 역사문화인물 선정을 통해 달서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,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애郷심을 고취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적 실효성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<생략>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~다. <생략>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(이하 생략)